

No.20170412-001

제목: 백 년의 산책

저자: 다와다 요코

페이지수: 246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3월 30일



<내용소개>

베를린의 곳곳을 산책하며 끊임없이 '그 사람'을 기다리는 화자의 이야기

'다와다 요코'는 독일어와 일본어 두 언어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는 작가다. 스무 살 이후 계속 독일에서 살고 있으며 이민작가로서는 드물게 두 가지 언어를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익숙한 언어를 통해 편안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도록, 낯익은 것들을 낯설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다와다 요코가 묘사하는 1인칭 인물은 고정된 자아정체성 없이 항상 변화하는 이방인이다. 주인공을 통해 기존의 시공간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그녀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어딘가를 부유하는 느낌이 독자들을 매혹시키고 때로는 난해함을 안겨준다. 《목욕탕》을 비롯해 한국에도 몇몇 작품이 번역 출간되었는데 《용의자의 야간열차》는 나를 나라고 부르지 못하는 주인공 덕분에 2인칭 시점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다.

《백 년의 산책》은 거리 두기의 달인인 그녀의 신작이다.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베를린은 세계 근대사의 굴곡을 겪은 도시다. 독일제국의 수도로서 번영을 맛보았다가 나치 정권의 암흑기를 겪었고, 공습으로 파괴되었다가 전쟁 후에는 동서로 분단되었다. 1989년 장벽이 극적으로 붕괴되고 통일된 지 이제 30년 남짓 되어가는 이 곳에서,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기다린다, 베를린 거리를 걸으며"라고 말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물론, 베를린의 사연 많은 역사를 다룬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도시 베를린, 다양한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살며 여러 언어가 튀어나오는 일상적인 풍경을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총 10편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거리 및 광장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았다. 화자는 베를린의 서쪽과 동쪽을 자유롭게 활보하며 부재 중인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첫 번째 이야기 <칸트 거리>에서는 변화가 근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카페, 칸트 거리의 작은 공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 후 칼 마르크스 거리, 마틴 루터 거리, 르네 스테니스 광장, 로자 룩셈부르크 거리, 콜비츠 거리 등을 다니며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떠올리며 기다리지만, 소설이 끝날 때까지 만남은 성사되지 못한다. 초반부에 통통 튀는 것 같던 화자의 톤도 종반으로 갈수록 점차 가라앉는다. 마치 환영을 쫓는 듯 하던 화자의 산책과 마음은 예상외의 결말을 맞게 된다.

소설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한 작품이다. 베를린 거리 곳곳을 누비는 여행기나 거리를 배경으로 한 짧은 연극 같기도 하다. 독자들은 '그 사람'과 화자에 대해 끝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집중할 수 있다. 이 작가만의 매력이 살아있는 작품이다.

<목차소개>

칸트 거리 / 칼 마르크스 거리 / 마틴 루터 거리 / 르네 신테니스 광장 / 로자 룩셈부르크 거리 / 푸시킨 가로수 길 / 리하르트 바그너 거리 / 콜비츠 거리 / 투홀스키 거리 / 마야코프스키 링

<저자소개>

다와다 요코

1960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1982년 독일 함부르크로 떠났으며 함부르크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후 취리히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91년 <발뒤꿈치를 잃고서>로 군조 신인 문학상, 1993년 <개 데릴사위>로 아쿠타가와 상, 2000년 《데미지 차의 경우》로 이즈미 교카 문학상, 2002년 《구형 시간》으로 두마고 문학상, 2003년 《용의자의 야간열차》로 다니자키 준이치로 상, 이토 세이 문학상, 2011년 《비구니와 큐피드의 활》로 무라사키 시키부 문학상, 《눈의 연습생》으로 노마 문학상, 2013년 《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요미우리 문학상과 예술선장 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하였다. 일본어와 독일어 두 가지 언어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1996년 독일어로 작가활동을 하며 샬미소 문학상을 받고 2016년에는 독일의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 크라이스트 상을 받았다.

No.20170412-002

제목: 흑룡장의 참극

저자: 오카다 히데후미

페이지수: 418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1월 11일



<내용소개>

메이지 시대와 고전 탐정소설의 매력이 절묘하게 결합된 역사 미스터리소설 시리즈

가벼운 느낌의 미스터리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모처럼 묵직한 매력으로 독자들을 몰입시키는 본격 미스터리 소설 작품이 등장했다. 오카다 히데후미의 《흑룡장의 참극》은 2013년 발간된 《이토 히로부미 저택의 괴이한 사건》에 이은 <가치린 탐정 시리즈> 제 2탄으로, 역시 메이지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가치린 탐정 시리즈>는 인기 없는 역사소설가인 '나'가 어느 고서점 주인을 통해 얻은 스키야마의 수기를 현대문으로 고쳐 쓴 것이라는 설정이다. 스키야마가 친구 가치린의 활약상을 지켜보고 전달하는 형식이 셜록홈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실존 정치인의 이름과 역사적 사건 및 분위기로 현실성을 가미하는 한편, 그 시기 그 설정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대담무쌍한 트릭을 내세운 본격탐정소설이다.

메이지 26년(1893년). 치바 현의 관리 '스키야마 준노스케'는 친구 '가치린 류타로'와 10년 만에 재회한다. 이들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정치가의 밑에서 동문수학하던 사이로, 가치린은 출세의 길을 버리고 탐정사무소를 개업한 참이다. 가치린은 '흑룡장'이라는 저택에서 벌어진 모종의 사건을 맡게 된다. 원로 정치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우루시바라'가 살해당한 사건이다. 우루시바라는 흑룡장에서 4명의 첩, 비서, 의사, 사촌, 하인들과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협박장을 받는다. 그로부터 3일 후 우루시바라가 실종되었고, 금고실에서 머리 없는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가치린과 스키야마는 흑룡장으로 함께 향한다. 그러나 수사를 시작한 가치린을 비롯, 다음날 제2의 참극이 발생한다. 피해자의 시체는 또 목이 절단되어 있었다. 우루시바라의 고향에 전해져 내려오는 섬뜩한 동요 가사처럼. 가치린은 내부 소행을 주장하는 경찰과 외부범인을 주장하는 의뢰인 사이에서 끝까지 고전하고, 소설 후반까지 참극은 계속 발생한다.

메이지 시대의 경찰조직은 국가치안을 위해 강권적인 수사방식을 주로 이용한 프랑스 경찰을 모델로 창설되었다고 한다. 이 소설의 범인도 괴도 루팡처럼 기발한 발상이 특징적인 프랑스 탐정소설 스타일이다. 반면, 인권보장과 적법한 절차를 존중하는 영미권의 탐정 캐릭터인 '가치린'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독자들은 마지막에 범인의 정체와 진상

이 밝혀지면, 이야기 곳곳에 힌트들이 교묘히 뿌려져 있었음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오락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은 수작이다.

<저자소개>

오카다 히데후미

1963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메이지대학을 졸업하였다. 1999 년 <낮선 무사>로 제 21 회 소설추리신인상을 수상, 2001 년 《혼노지의 6 일 밤 이야기》로 단행본을 내며 데뷔하였다. 2002 년 《타이코 암살》로 제 5 회 일본미스터리문학대상 신인상을 받았다.

No.20170412-003

제목: 가난은 반드시 고쳐진다: 생활습관병 '가난'을 이기는 처방전

저자: 사쿠라가와 신이치

페이지수: 224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3월 01일



<내용소개>

'가난'이라는 생활습관병과 멀어지는 비결을 가르쳐 줄 경제 계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씬씬이를 줄이려고 애써도 언제나 돈이 부족한 것 같아 불안하다면? 매달 카드명세서를 볼 때마다 뭔가 잘못 결제된 것 같아서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 다음 달에도, 1년 후에도 그 불안과 반성은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의 원인과 개선책은 무엇일까? 주식 투자 대박 혹은 복권 당첨을 바라는 것 외에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는 '가난'의 원인을 '생활습관'에서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가난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행동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습관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20대에 형이 파산하면서 3억 엔의 보증 빚을 지게 되었으나, 부동산 및 주식 투자로 자산을 늘려 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가난 탈출 비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항상 돈이 없는 사람의 습관〉 편에서는 자신의 행동 패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나눗셈으로 생각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곱셈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꽤 큰 금액도 나누면 적게 느껴진다.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무리하게 구입하고서, 이것을 10년 탄다고 가정하면 매일 600원만 지불하는 셈이므로 이득이라고 여기는 식이다. 부유한 사람은 반대로 최소단위 금액을 점점 곱해나간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오직 감으로 자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으로 이어져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두 집단의 차이를 배운 다음에는 변화를 실천하며 개선을 도모하는 파트로 이어진다. 종자돈을 만들고 돈 제대로 쓰는 방법 배우기, 소규모 창업 시도하기, 투자를 통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 늘리기 등 구체적인 힌트를 제시한다.

가난과 멀어지고 부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일상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설령 일확천금이라는 행운이 다가와도, 가난해지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돈이 사라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식이요법과 생활 리듬 정돈, 운동을 통해 신체상태를 개선하듯 가난도 치료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일찍 '가난' 체질을 바꾸어보기를 바란다

<목차소개>

1. <항상 돈이 없는 사람>의 습관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곱셈으로 생각하는 부유한 사람 / 돈을 빌려주는 가난한 사람, 돈을 빌려주지 않는 부유한 사람 / 선생님의 말을 믿는 가난한 사람, 선생님의 말을 의심하는 부유한 사람 등)

2.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STEP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드디어 왔습니다 / 부자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보자 / 종자 돈을 만든다 / 우선은 버린다 등)

<저자소개>

사쿠라가와 신이치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기획회사에 근무하였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20대에 형의 회사가 도산하며 연대보증으로 3억 엔의 빚을 떠맡게 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 경험을 통해 <가난은 생활습관 병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맨션 경영과 주식투자에 성공함으로써 자기파산 직전의 상황을 면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만큼 자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No.20170412-004

제목: 숫자를 읽을 줄 알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저자: 후루야 사토시(저자), 다나카 야스히로(기타)

페이지수: 251

장르: 비즈니스,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3월 24일



<내용소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쉽고 실용적인 회계지식을 전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련들을 마주하게 된다. 언제나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처리와 신고 등 법적 업무는 초보자가 홀로 처리하기에 너무 복잡하다. 매출을 상승시키고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 여기서 또 하나, 매출과 이익을 나누어 생각해봐야 한다. 항상 손님이 북적대는 곳인데도 정작 회계결산을 해보면 본전을 겨우 건지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모순이 드러나기도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도 항상 존재한다.

이 타이틀은 소규모 회사 경영자가 자신의 실패와 위기극복 및 성공을 통해 얻은 교훈을 생생하게 전하는 회계입문서다. 영업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꽃가게를 개업한 저자는 이후 창업자들이 겪기 쉬운 어려움을 그대로 경험했다. 오프라인 운영이 정체되자 온라인 판매에 착수한 것은 관찮은 판단이었다. 열심히 장사에 매진해 1억 엔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손에 남는 수익은 거의 없었다. 매출액을 올리면 자금 사정도 좋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믿은 결과였다. 뒤늦게 문제점을 깨닫고는 회계 지식을 열심히 쌓아 '매출 중시'에서 '한계이익 중시'로 경영 노선을 바꿨다. 이후 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고 계속 그 흐름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저자가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며 집필한 이 책은, 총 5개 장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성공을 향한 비결을 전한다. 1장에서는 매출은 좋은데 수익은 적은 현상, 자금이 부족할 때 은행 대출의 필요 여부, 세금회계지식과 경영지식의 차이 등을 살펴본다. 2장과 3장에서는 경비와 비용의 개념, 돈을 벌기 위해 알아둬야 하는 회계지식, 한계이익 개념과 한계이익률 등 본격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경영정책 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흑자와 적자의 분기점을 가능해보고, 가격인상이 한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4장은 회사의 딜레마인 '가격인상'에 초점을 맞춰, 회사의 이익에 공헌하는 상품을 구별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 5장은 회사의 자금 순환, 광고비용 대비 효과, 사업이 잘 될 때의 인력 충원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다루며 이익을 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모든 과정이 저자의 체험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층 생생하고 설득력이 있다. 이론서에 적힌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회계 지식을 전수한다. 실제 회사를 운영 중인 경영자는 물론, 앞으로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돈은 나중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 2장: <숫자>를 볼 줄 알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제 3장: <돈을 버는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 4장: <가격 인상>을 했더니,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제 5장: <숫자>를 보게 되었더니 정말 돈을 벌었습니다

<저자소개>

후루야 사토시(저)

1973년생, 현재 라쿠텐의 인기 꽃집 <게키하나>를 운영 중이다. 2004년에 순조롭던 영업 일을 그만두고 1달 간의 연수를 거쳐 꽃집을 개업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배수의 진을 치고 인터넷 판매에 착수한다. 매출은 올랐지만 몇 년 뒤에 결산서를 보니 계속 적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 후, 회계를 배운 것을 계기로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다. 이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꽃집 운영과 더불어 <흑자회계.jp> 사이트 운영 및 관리회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으며, 작은 회사를 중심으로 <흑자가 되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다나카 야스히로(기타)

다나카 공인회계 사무소 소장. 1963년 미에 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상학부를 졸업하였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거쳐 현직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 경영·회계 세미나, 강연, 서적의 집필, 신문·잡지 연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No.20170412-005

제목: 아이인 채로 중년이 되는 젊은이들

저자: 나베타 야스타카

페이지수: 238

장르: 사회, 심리

출간일: 2015년 07월 29일



<내용소개>

30년 이상 청년층을 지켜본 정신과 의사가 젊은 세대의 변화와 문제를 분석한다

현재 청년들이 과거의 청년들보다 미성숙하다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은 즉시 '꼰대'로 규정된다. 그리고 불합리함을 참지 않는 것이다, 수직적인 문화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봤자 소용 없다, 유례없는 취직난 때문에 인생설계조차 할 수 없다 등등 열띤 반박이 이어진다. 맞는 내용이지만, 국민들의 정신성숙도가 점점 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불과 수십 년 사이 청년층의 사고방식은 크게 변했다. 진화인지 쇠퇴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책은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청년층에게서 두드러지는 변화를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청년들의 무기력함과 사고의 협소화'는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다. 그래도 서구권에서는 자기 주장이 확실하며 종교를 중시하고 가족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본은 그마저 없다며 우려한다.

저자는 자신이 30년 간 임상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적절히 곁들이며 청년층의 새로운 모습을 파헤쳐나간다. 청소년부터 신체기능 및 통합 사고력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사춘기의 반항심이 줄어든 대신, 계획을 벗어나거나 노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했다. 또한, 교류 자체에 대한 공포,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불안이 각종 정신 문제의 근원으로 등장했으며 도피형 우울증 환자 비중이 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의욕과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의사소통이 반사적, 일시적 성격을 띠는 점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 상황을 깊게 고민하지 않고 "모르겠다", "별로", "그냥"이라 넘기며 본인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은 자립성 및 주체성의 약화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저자는 행동 및 사고 범위가 지극히 좁아지는 식물화와 자기 소신 없이 남의 말에 잘 흔들리는 해파리화 등 청년층의 문제가 <청춘의 상실>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모와 갈등하고 사랑에 애태우던 청춘이 사라지면서 성숙할 계기를 잃은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아이의 정신수준으로 중년 어른이 된다. 유아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리거나 자기에에 끌려 다니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일을 계속 미루는 것이다.

현재 일본 청년층의 부정적인 변화들을 중심으로 짚어보았지만, 그에 응해 새로운 동기부여방

식이 나타나는 점은 희망적이다. 본인과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식물 같은 생활방식은 지금 같은 불황기에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다. 청년층의 변화는 개인보다 사회의 영향이 크다. 한국의 청년층 역시 저자가 발견한 일본의 청년층과 비슷한 모습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절망과 희망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변화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지금 청년층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 제 2장: 정신과 임상 30년의 현장에서
- 제 3장: 고민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젊은이들
- 제 4장: <청춘>이 사라진 사람과 세계
- 제 5장: 일본인은 이대로 쇠퇴하는가

<저자소개>

나베타 야스타카

의학박사, 임상심리사. 1947년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으며 게이오기쥬쿠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동 대학 신경정신과 조수, 강사, 우츠노미야대학 보건관리센터 조교수, 방위医科大学 정신과 강사, 다이쇼대학 교수 등을 거쳐 2013년 3월까지 릿쿄대학 현대심리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아오야마 시부야 메디컬 클리닉 명예원장, NPO 법인 아오야마 심리 growing space 이사장으로서 임상을 맡고 있다. 유럽 공동 인정 psychotherapist 다. 전문분야는 심리학, 임상심리학, 아동 청년기 정신의학, 우울병 임상 등이다. 《우울병을 잘 알게 되는 책》, 《변해가는 사춘기 심리와 병리》, 《신체이형장애》,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둬야 할 것》 등 다수의 저서를 발표했다.

No.20170412-006

제목: 성인 히키코모리를 구하라!

저자: 히로오카 마사유키

페이지수: 222

장르: 사회, 심리

출간일: 2017년 03월 19일



<내용소개>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 원인, 사회구조적 문제점, 가족의 대응과 사회 복귀에 대한 분석

‘히키코모리’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일본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외부 접촉을 극도로 피하며 인터넷이나 TV에 몰두하고 자기혐오·우울함·난폭함 등 정서장애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요즘 일본에서는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이슈다.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히키코모리가 전체의 30~50%로 추정된다.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돌봐왔던 부모들이 노년으로 접어들며 경제적 궁핍도 심화된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10년 전부터 등교거부자·비행청소년·히키코모리 등 사회에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자립갱생을 위한 첫 걸음을 뚝 수 있도록, 의사와 직원들이 같이 지내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생활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히키코모리가 생겨나는 원인과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문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에서는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 활동과 현황을 설명한다. 성인 히키코모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창시절 등교거부가 지속되어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 취직활동에 연이어 실패하며 히키코모리가 되는 경우다. 물론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부모를 통해 개선을 꾀하는 간접적 지원과 당사자를 방문하는 직접적 지원이 실시된다. 일본에서는 진작부터 ‘히키코모리’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인 히키코모리의 등장과 장기화,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을 고민해 본다. 3~4장은 학창시절 장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방황하였던 본인의 경험과 이 지원활동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5~6장은 히키코모리 지원 실무자로서 목격한 현장 풍경을 전하면서, 집단생활이 히키코모리의 사회 복귀에 효과적임을 설명한다. 틀에 박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생활 리듬이 정돈되고 외부 자극이 늘어나며 사회적 범위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장에서는 히키코모리를 벗어나는데 성공한 당사자들의 체험담을, 8장에서는 가족들만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알려준다. 9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긍정적인 다짐을 통해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일본에는 개선과 자립을 돕는 조직이나 기관도 꽤 있으나 한국에서는 상담을 신청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 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 제 1장: 히키코모리를 도와준다는 일
- 제 2장: 100만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는 나라
- 제 3장: 장애를 가진 소년이 비행소년이 되기까지
- 제 4장: 자신의 천명을 발견하기까지
- 제 5장: 히키코모리 지원의 실제
- 제 6장: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 제 7장: 긴 터널을 빠져 나온 사람들
- 제 8장: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 제 9장: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저자소개>

히로오카 마사유키

일반사단법인 젊은이 교육지원센터 대표이사. 원스텝 스쿨 교장.

1981년 치바 현에서 태어났으며, 유·소년기에 병으로 다리에 중증 장애를 안고 1년간 입원생활을 했다. 초등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와 똑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괴로움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방황하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퇴학하였다. 그 후 DJ를 꿈꾸며 뉴질랜드에서 2년간 홈스테이를 하였다. 귀국 후 청소년 육성 코디네이터 이토 유키오 씨를 만나면서, 자기 경험을 살려 문제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갱생을 돕기로 결심한다. 2008년에 '원스텝 스쿨'을 설립하고 등교거부, 히키코모리, 비행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히키코모리 방문 지원 내용이 뉴스 프로그램 등에 소개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제28회 인간력 대상 수상.

No.20170412-007

제목: 인생안내 366

저자: 데쿠네 타츠로

페이지수: 290

장르: 에세이, 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2월 25일



<내용소개>

남녀노소 상관없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366가지 고민에 대하여, 나오키상 수상 작가인 데쿠네 타츠로가 답한다

한 사람의 삶에는 무수한 고민이 닥치지만, 그것은 그 한 사람만 겪는 고민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문제를 거쳐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상담을 요청하고 공감과 조언을 기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보통 친구나 가족처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만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 줄 수 있는 제 3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연재되는 <인생안내>는 독자의 고민 사연을 받고 답해주는 코너다. 유명작가 '데쿠네 타츠로'가 2001년부터 답변자를 맡아 진솔한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 책은 12년 동안 연재되었던 엄청난 분량 중에서 엄선한 문답을 모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자기 자신, 부모, 부부, 자식,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조부모, 돈, 친척, 진학 및 취직, 친구관계, 집, 직장, 연애, 질병 등 테마만 총 18개에 전부 366가지 항목이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포괄적인 시선을 지닌 작가가 날카롭고도 부드럽게 원인과 해결책을 짚어주는 것이 매력이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의 체험과 엮어 담백하고 간결하게 전하는 답변은 읽는 이를 금세 설득한다.

고민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것들이다. 따돌림을 당했던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가 없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귀찮다, 가업을 돕는 것이 싫다,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아들부부 등 나 자신과 가족 및 대인 관계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과거보다 복잡해진 인간관계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소득격차의 심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노부모 간호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고민상담 요청자가 중1 여학생부터 92세 남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기에 남녀노소의 문제를 고루 다루고 있다. 저자는 역사적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예로 들기도 하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단호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마음씀씀이도 느껴진다. 누구도 확실히 알려주지 않는 사회생활의 매너라던가 이웃과 가까워지는 힌트, 인간사의 미묘함을 설명하는 부분들에는 핵심을 찌르는 주옥 같은 명언이 가득하다.

인생고민에 대처하는 방식에는 정답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데쿠네 타츠로의 말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삶의 희로애락이 응축된 듯한 《인생 안내》는 당신에게 난관을 헤쳐나갈 용기와 웃음을 전할 것이다.

<목차소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 부모에 대한 고민 / 부부 간의 고민 / 아들 딸에 대한 고민 / 며느리 사위에 대한 고민 / 형제자매에 대한 고민 / 조부모에 대한 고민 / 친척 관계에 대한 고민 / 진학 취직에 대한 고민 / 친구관계에 대한 고민 / 집에 대한 고민 등

<저자소개>

데쿠네 타츠로

1944년 이바라키 현에서 태어났다. 1973년부터 도쿄에서 고서점 '호가도(현재는 폐점)'를 운영하는 한편 집필활동을 시작하였다. 1992년 《별 것 아닙니다만》으로 고단샤 에세이 상, 1993년 《쓰쿠다시마 두 사람 책방》으로 나오키 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고서기담》, 《작가의 가격》, 《구석의 사계절》, 《7가지 얼굴의 소세키》, 《책과 지내면》 등이 있다. 2001년 1월부터 요미우리신문에 〈인생안내〉의 답변자를 맡고 있다.

No.20170412-008

제목: 인생이 바뀌는 하루 10초 명상

저자: 호사카 타카시

페이지수: 207

장르: 건강

출간일: 2017년 03월 09일



<내용소개>

의사가 추천하는 명상과 마음챙김, 그 실천방법과 뛰어난 효과를 소개한다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쌓이는 마음의 쓰레기들을 제때 치우지 못하면 본인은 물론 주변사람들도 힘들어진다. 주기적으로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건전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명상'이다.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요가나 종교적 수양을 떠올리면서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또는 호흡을 가다듬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명상'의 유익함은 예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진행되고 있다.

현직 의사가 명상의 역할과 방법, 뛰어난 효과를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이다. 의료현장에 명상을 활용하고 연구를 진행해 온 저자의 명상 입문서로서 다양한 명상 방법, 흥미로운 명상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마음챙김(Mindfulness)'이 신개념 휴식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 뇌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효과가 증명되고, 기존의 다른 명상법과 달리 인도의 종교철학 색채가 없어지면서 지식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 등 대기업에서도 명상 활동을 추천하고 있으며, 마음챙김 즉 명상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명상의 유용함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여러 가지 방법을 본격적으로 설명한다. 몸에 힘을 빼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며 편안한 자세를 잡은 다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잡념을 떨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명상법이다. 빛의 힘을 빌리는 명상, 본인과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명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명상,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명상 등 목적에 따라 세부 과정이 달라진다. 창의력과 기억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강화, 뇌의 피로도 감소, 치매 예방 등 명상으로 얻는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어떻게 이런 효과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 생물학적인 측면의 설명을 같이 제시하는 점이 의사답다. 책 후반부에는 명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팁과 보다 심화된 명상 방법, 실제 체험담을 수록하였다.

명상의 유익함은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다면, 명상의 가치를 과소평가 하고 있었다면 이 책이 당신의 편견과 생활방식을 바꿀 것이다. 하루 10초라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일상에 자리잡

도록 해 보자. 서서히 삶이 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왜 지금 명상이 주목 받는 것일까
- 제 2장: 누구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명상 안내
- 제 3장: 명상의 놀라운 효과
- 제 4장: 명상을 계속하기 위한 마음가짐
- 제 5장: 더 깊이 있는 명상의 세계를 위해

<저자소개>

호사카 타카시

St. Luke's 국제병원 정신종양과 의장, St. Luke's 간호대학 임상교수.

1952년 야마나시 현에서 태어났다. 게이오기쥬쿠대학 의학부 졸업 후, 동 대학 신경정신과에 입학하였다. 1990년부터 2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유학하였다. 도카이대학 의학부 교수 등을 거쳐 현직을 맡고 있다. 저서 및 감수서로는 《돈이 들지 않는 '노후 즐기는 방법'》, 《초조함이 사라지는 '노후의 쾌적한 생활 기술'》, 《암이어도 장수할 수 있는 마음의 기법》, 《50세부터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No.20170412-009

제목: 소녀의 비밀 상자

저자: 후지타 미나코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7년 03월 04일



<내용소개>

귀여운 소녀와 강아지가 꿈 속에서 비밀스러운 상자 속 여행을 떠납니다.

작고 귀여운 소녀 '브아뜨'의 보물은 제비꽃이 그려진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도자기로 만든 강아지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소녀는 강아지 인형을 '코프레'라고 부르며 항상 곁에 두고 소중히 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브아뜨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됩니다. 코프레가 진짜 강아지가 되어 온갖 상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목마가 새겨진 둥근 상자를 열어보자 눈 앞에 샛노란 들판이 나타납니다. 리본이 묶인 상자를 열자, 장난감을 만드는 분홍색 공장이 나타납니다. 커다란 트렁크 상자를 열자, 각종 도구가 준비된 그림 그리기 세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소녀는 강아지 코프레와 상자를 열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누비며, 상자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잠에서 깨어나 모두 꿈이었다는 사실에 쓸쓸해 하던 소녀 앞에 정말 살아있는 강아지 코프레가 나타납니다.

'브아뜨'와 '코프레'는 프랑스어로 각각 상자, 보석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자 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계는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발상이 빛나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앞날을 꿈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えのぐに クレヨン、いろえんぴつ。
ほこのなかほ おえかきの せかい！



「きやん！ きやん！！」
ボワットちゃんの あしもとに みずいろのリボンを つけた
こいぬが かけよってきます。

「コフレ！」

<저자소개>

후지타 미나코

1984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게이오기쥬쿠대학 문학부 미학미술사학과를 졸업하였다. 일러스트레이션 아오야마 학원을 수료하고 제5회 TIS공모입선을 거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동화책은 본 작품이 첫 작품이다.

No.20170412-010

제목: 거 참 이상하네!

저자: 이시이 히로시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12월 0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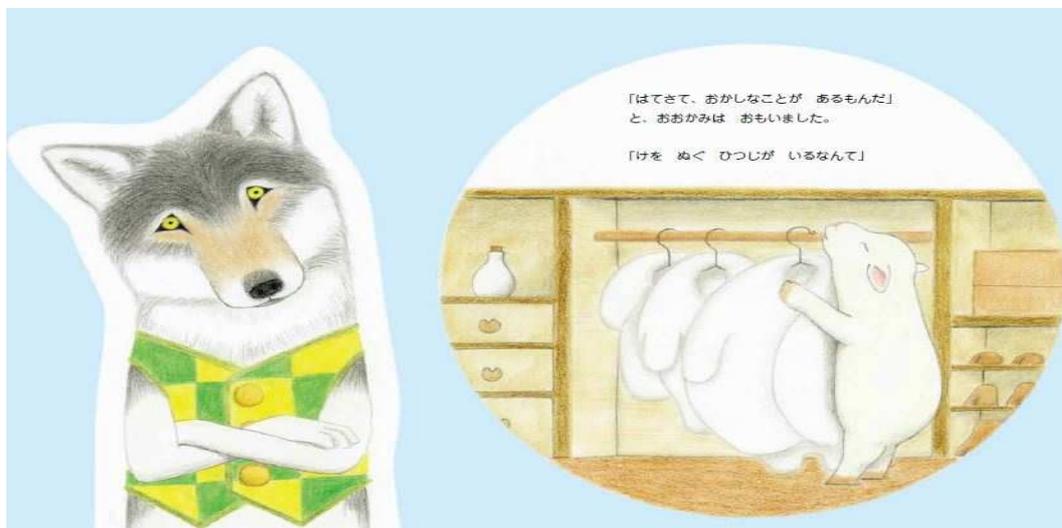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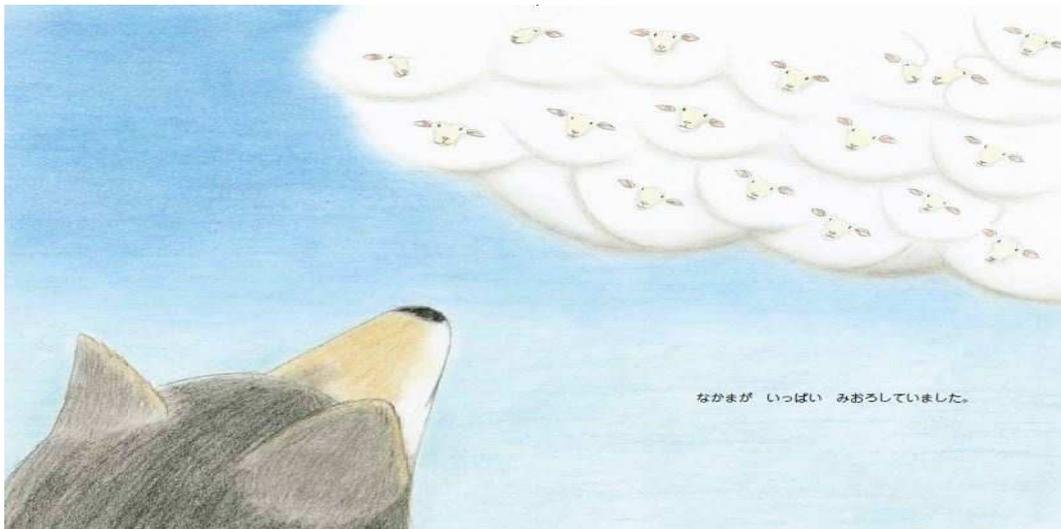
털옷을 잃어버린 양과 너무나도 친절한 늑대의 웬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평화롭게 차를 마시고 있던 늑대는 뒤뜰에서 울고 있던 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늑대가 무슨 일 때문인지 친절하게 물어보자 “낮잠을 자다가 벗어둔 털 옷을 잃어버렸다”고 답합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 다 있군. 늑대는 양이 털로 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한다는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같이 털옷을 찾아봐주겠다고 나섭니다. 평소에 잘 견지 않아서 쉽게 지친다는 양을 친절하게 업고서 말입니다. 원래 양들은 다 같이 무리 지어 있는데 홀로 다니는 것을 보니 혹시 염소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중, 털옷이 하늘에 둥둥 떠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를 겨우 넘기며 찾아준 털을 입은 양은 자기의 집이 하늘이라며 둥실둥실 떠서 날아갑니다. 늑대에게 이상한 일들이 가득했던 하루입니다.

어딘가 수상쩍은 양 한 마리와 뒹쳐서 잡아먹기는커녕 너무나 친절하게 요구를 다 들어주는 늑대. 늑대가 거 참 이상하네, 하면서도 순순히 따라주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부드럽고 폭신한 털의 느낌을 살린 일러스트와 소소한 스토리가 잘 어울립니다. 5~6세쯤부터 읽으면 좋은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이시이 히로시

오사카 출신. 2014년 제3회 MOE 창작그림책 그랑프리, 2015년 제8회 MOE 창작그림책작가 대상
신인상 제1위를 차지했다.